

**CEO 동정**

**KR 열린마당 CEO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2013년 5월 KR 열린마당'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철도변화'라는 주제로 CEO 특강을 가졌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0일 부산~울산 복선전철 양정고가 등 영남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직원 모두가 경영자 마인드를 갖기를 당부했다.

**철우회 정기총회 참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철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공단은 올 한해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로템 창원 열차제작 공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30일 창원의 현대로템 열차제작 공장을 방문하여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투입될 열차의 제작현장 등을 둘러보고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리파이낸싱으로  
이자비용 1300억원  
이상 절감**

- 고통용자금 1조221억원  
13년 앞당겨 조기상환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 '00년부터 '06년까지 정부로부터 융자 받은 고통용특별회계융자 1조 221억원을 당초 만기인 2026년 보다 13년 앞당겨 올 4월부터 8월까지, 5차례 걸쳐 저금리 장기채권 발행자금으로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본부는 1차로 지난 15일 5.5% 이율인 정부융자금 2162억원을 2.9% 이율인 채권발행자금으로 조기상환하여 23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으며, 8월까지 전액 상환하게 되면 13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번 조기상환은 저금리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높은 이자의 정부융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리파이낸싱, Refinancing)으로 13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절감되어 공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정부의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재무 분야뿐만 아니라, 과잉시설 개선, 국유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등 자구노력으로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기상환 계획**

(단위: 천원)

상환 회차	상 환 일	상환금액	비 고
1차	2013-04-15	216,163,200	※ '12년말 원금잔액 기준
2차	2013-05-15	216,934,400	
3차	2013-06-14	124,551,600	
4차	2013-07-15	213,263,600	
5차	2013-08-14	251,147,600	
계		1,022,060,400	

**美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사업 참여**

- 중국, 인도 이어 미국에도 한국철도기술 수출 길 열려 -

시설사업본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고속철도건설사업 우선사업구간(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제1공구(마데라~프레스노 40km)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공단과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한 튜터 페리니(Tutor Perin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미국시장 진출이 가시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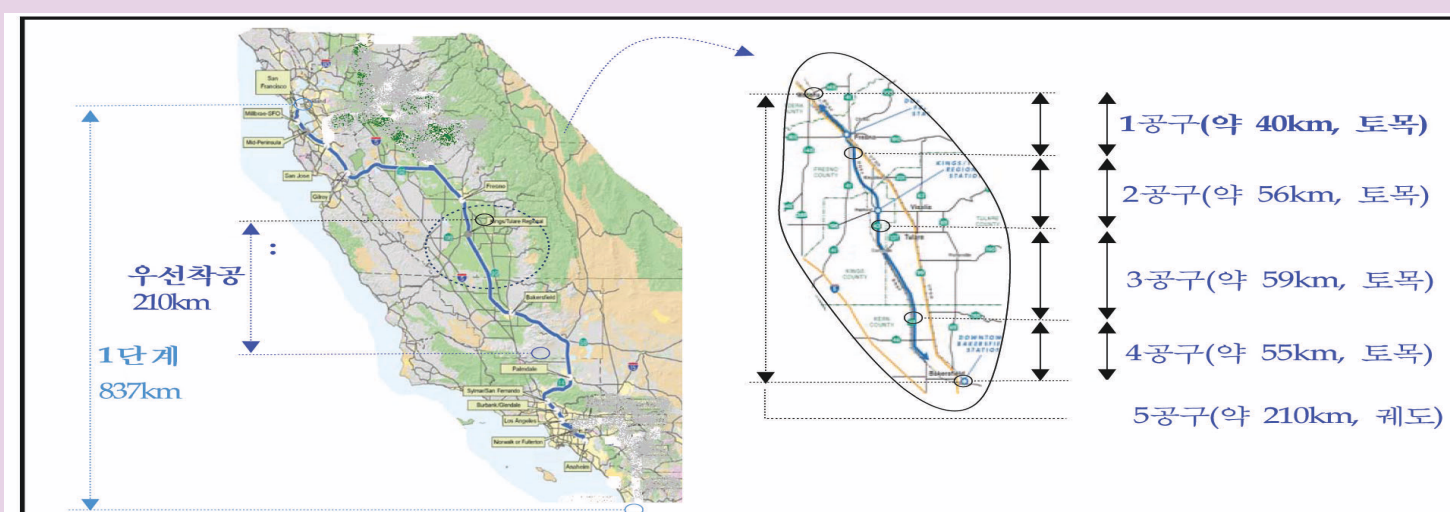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건설 재원을 분담(연방정부 55%, 주정부 45%)하는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애너하임(837km)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자원 문제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우선사업구간(사업규모 52억달러)인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를 관통하는 프레스노~베이커스필드 210km를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서 미국 굴지의 건설사들로 구성된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Tutor Perin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공단은 미국 컨소시엄과 오는 6월까지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에서 설계 및 시공 분야에 대한 기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 12개 고속철도 감리사업(총 연장 3800km)을 수주하고, 인도 고속철도 설계자문에도 참여한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미국 현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현지에서 한국 고속철도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유력 업체와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온 결과 마침내 미국시장 첫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업 참여를 계기로 이후 발주될 추가사업의 참여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을 뿐 아니라 2028년 완료될 약 70조원 규모의 본 사업(토목시공, 차량·시스템구매 통합발주)에 다양한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구간 위치도>**



**중국고속철도 감리분야 3년 연속 최우수업체 선정**

-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제치고 최고등급 'A' -

시설사업본부에 따르면 중국고속철도 건설사업 장사(長沙)~쿤밍(昆明)구간 감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단이 중국 발주처(호남고속철도여객전용선구주유한공사)와 철도부 합동으로 시행한 감리업체 평가에서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5개 외국감리업체를 제치고 91.8점으로 최고등급 'A'를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감리업체로 선정되었다.

감리업체 평가는 중국 철도부가 발주처와 합동으로 불시에 감리업체의 안전품질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우수업체는 상장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업체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12년 첫 평가를 시행한 이래 3회 연속 최우수감리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모범 현장으로 지정되어 중국 고속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80여개 시공사 현장소장이 견학하는 등 현지에 한국의 철도기술과 감리수행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공단은 2020년까지 고속철도 1만6000km(4중4횡)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고속철도시장에 2005년 첫 진출한 이래 총 12개 사업(매출액 535억원, 사업연장 총 3800km)을 수주하여 5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3년 연속으로 감리 최우수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 추가로 발주될 고속철도사업의 수주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최종 낙찰자 결정**

- 담합 추정 4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기로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16일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의 낙찰업체로 (주)한양,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케이씨씨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등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입찰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최저가 입찰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1단계)와 물량내역적정성심사, 부정공종에 대한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 착공구간 5개 공구에 이어 이번 7개 공구의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낙찰자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정도 늦어진 이유는  
○ 1단계심사 과정에서 응찰한 3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4개 공구(2, 3-1, 3-2, 4)에서 전례 없는 입찰금액 사수서를 제출하였고,  
○ 입찰금액 절감사유 등의 설명내용과 문구 및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이 복사본처럼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 4개 공구의 동일한 5개 공종에 대해 3개사가 타 업체

(31개사)의 평균입찰률(80% 이상)보다 21%나 낮은 59%대로 투찰한 반면, 1개사는 80%에 근접한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 공구별로 1개 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한 의혹이 있어,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계약자는 담합이 추정되는 4개 업체가 4개 공구에 각각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4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관계자는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고, 공정위의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낙찰자가 건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제기할 것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 업체에 대해 담합결정이 날 경우, 부당당업자 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공단사업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공구 낙찰업체 선정 현황**

구 분	연 장	낙찰금액(억원)	낙찰업체	행정구역	
서원주	1공구	10.85km	1,542	(주)한양	원주시
	2공구	11.57km	1,428	(주)한진중공업	원주시, 횡성군
	3-1공구	8.68km	1,427	현대건설(주)	횡성군
	3-2공구	4.15km	1,446	두산중공업(주)	횡성군
	4공구	9.75km	1,571	(주)케이씨씨건설	횡성군
평창	5공구	9.698km	1,017	두산건설(주)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11-1공구	4.11km	945	삼성물산(주)
계		58,808km	9,376		

